

제불보살 · 역대조사 다례제와 조상영가 천흔대재를 위한 연작詩
<다례와 천도의 노래>

茶禮와 薦度の 노래

1. 제불보살님 前
2. 역대조사님 前
3. 유주무주 조상영가 前
4. 사변영가 前
5. 사대영가 前
6. 참사영가 前
7.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前
8.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前
9. 살처분 동물영가 前
10.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영가 前

- 고 규 태 (시인) -

■ 지은이 소개

* 시인 고 규 태 (高圭兌)

- 1959년 전라남도 화순 출생
-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1984년 시전문지 『민중시』 제1집 ‘신인’으로 시인 등단
- 1889년 시집 『겨울 111호 법정』 등 간행
- (사)한국작가회의 회원, 시분과 간사 역임

- <서산마애불> <삼보일배의 노래> <다시 동두천> <회문산> <나팔꽃의 노래>
<모처럼 향기롭습니다> <화정동 노을> 등 詩 200편 이상 발표
- 333행 장시 <만불산> 발표
- 5.18민주화운동 장시 <들불7열사> 발표
- 불교노래 <삼경에 피는 꽃> <천년와불> <설산매화> <무소의 뿔처럼> <길>
<딩동댕> <허공의 새여> 등 다수 작사
- 환경노래 <도요새> <우리는 하나> <갯벌사랑가> <열목어 한 마리> <나는
강이 되리니> <아침노을> 등 다수 작사
- 민주/통일노래 <전진하는 오월> <민주, 너를 부르마> <육인 몸 육인 세월>
<하늘길> <통일을 이루자> 등 다수 작사

- 현, 10,000행 대작장시<須彌山 萬佛山> 집필중

- 「국민일보」 심의팀장, 기획팀장 역임
- 인동출판사 주간 및 대표이사 역임
- (사)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 기획본부장 역임

1.

제불보살님 前

이 자리 만불산 사부대중
이리도 산처럼 모여 일으키네 꽃
이루네 滿佛

산문의 용천수 유난히 맑고 푸르고
함께 님을 맞는 설레는 날에
저마다 몸과 마음 여미는 날에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아미타 약사여래...부처 부처님
문수 보현 관세음 지장...보살 보살님

다즉일체로 나투신 제불보살 님하

님은 마하, 크고 커서 그러할
님은 마하반야, 모남도 끝도 없어 그러할
님은 반야바라밀, 우리 저 언덕 가며 그러할

뜻이 그러하오매 오늘
예경 드리고 공양 올리오니 받으시라

그 가르침 되새겨 한 삶을 다짐하오니
앞생각과 행 어두웠으나
뒷생각과 행은 밝을지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리행 이타행 걸림없이 행할지이다

남북은 평화로 통일로 영호남은 화합으로
전세계 유정무정 두루 껴안을지이다

2.

역대조사님 前

향기로워라 이 도량
소리 소리를 넘어 고요하여라 산

여기, 다례의 一心
萬心으로 받들어 님을 맞이하나니
다향은 저 수미산까지

하여 이 꽃장엄 만불산에
중중무진으로 오신 역대조사 님하
언어도단 불립문자로 오신 님하

님은 승-, 승은 법이요 법은 불
불은 나-, 나의 눈뚱이기에 나무 佛·法·僧

과한 욕심 그러한 따위 부질없음을
헛된 분별 그러한 따위 소용없음을
니탓 네탓 그러한 따위 쓸데없음을

그러하매 내가 스스로 눈을 뜨고
무자비에서 자비로 쾌히 나아가려네

하오나 역대조사님 한 말씀도 없으시네
우리를 향하여 다만,
할!

이제부터는 우리도 삼독을 벗고
그렇게 그렇게 다만,
할!

3.

유주무주 조상영가 前

모였다 흩어지는 건 구름
맺혔다 스러지는 건 이슬
육신 휘감은 중생의 길도 그러함에

한몸 받아 왔다가 가시었네
생노병사의 강물 흐르어
세간 인연 다함에 생사 나뉘었네

하온데 가다가 어디메
하온데 가다가 어이해 뒤를 돌아보시나
호호불호 이승의 정 그리 깊으신가

유주무주 조상영가여
제행은 무상 생자는 필멸
그 길에 아미타 아미타- 님이 계시니

귀의하여 무명업장 떨치시라

아미타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영가 위해 님의 명호 부르고 부르나니
번뇌 미련 모든 집착 다 놓으시라

공수거, 님의 손을 잡고 훨
공수거, 참회하여 청정 이루사 훨 훨
극락에 왕생하사 육도윤회 훨훨 벗어지이다

아미타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4.

사변영가 前

-호국영령, 순국선열, 전쟁 희생자

가로막는 칼산, 끊는 화탕 속으로
남 떠밀긴 쉬워도 내가 나서긴 어려운데

돌아보니 보이네, 흥망의 고비마다
한 몸 던져 나라 구하고자 한
호국 순국의 거룩한 자취 보이네

돌아보니 또한 보이네
自와 他, 我와 敵, 선부른 분별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징집 소집 동원되어

아, 6·25사변- 숨겨둔 400만의 숨결숨결
격전지 영천전투 포화 속의 남녀노소
57년 만에 드러난 경북 백자산 양민학살

찢긴 청춘의 강제징집, 종군위안부
귀무덤 코무덤의 임진년 백성들 보이네

못 잊혀 겨레의 산하를
못 잊어 피붙이의 언저리를
근심 걱정으로 떠도는 영가들

빛나는 혼이여 애달픈 사변의 넋이여

이제는 나라 지킴도 평화 펼침도
산자들의 몫, 우리가 행할지니

영가여, 잊고 가시라 님의 등불 따라
가시어 극락원 이루시라

5.

사태영가 前

평화로이 수미산 바라보고 싶었으나
피로 물든 거리 거리

위쪽만 말고 나란히 잘 살자 했으나
총구 아래 쓰러진 목숨들

과아란 마음 갖고 순하게 살았으나
붉은 누명을 쓴 양민들

한 생각 헛 탐욕에 나라 하나가 먹잇감
오시는가, 티벳의 영가

한 생각 헛 분노에 제 백성이 피범벅
오시는가, 미얀마의 영가

한 생각 어리석음에 섬과 동네가 불바다
오시는가, 제주 4·3과 거창골 영가

나만 옳다는 神國들의 복수와 복수
겉 다르고 속 다른 洋國軍의 흉단 폭격
외면 속에 굶다가 돌아간 黑國들의 아사자

그러한 모든 영가 예 오시었으니
받으소서 우리들의 마음
풀어버리소서 그 원과 한을

오늘부터는 고운 님과의 동행길

극락 누리에 가지어
높게높게 다시 태어날지이다

6.

참사영가 前

달 가리켜 달을 보매 국경 없어라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 속에
저 미얀마 싸이클론 속에
내 목숨 있어라

달 가리켜 달을 바라보매
대구지하철 참사와 경북 봉화 산사태 속에
인도네시아 해일과 일본 미국의
지진 홍수 속에 내 목숨이 있어라

뗏목 타고는 뗏목 버리매
我相 없어라 와르르 삼풍백화점 안에
화산 폭발 치솟는 용암 안에
와르르 저 성수대교 위에 내가 있어라

참사 참사 참혹한 참사
영가 영가 안쓰런 영가

한순간 별안간에 떠난 몸인지라
고별다운 고별도 못했느니
움켜쥔 짐착도 놓을 겨를 없었느니

오늘 이 만불산에서
현향의 연기 따라 어여삐 고별할지이다
다 버리고 천도길 편히 떠날지이다

으깨진 육신 벗고 극락왕생 하실지이다

7.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가 前

꽃밭엔 아직 꽃이 듬성듬성
민이 주가 되는 꽃밭은 허전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
조금은 보게 됐습니다, 4·19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의 귀
조금은 듣게 됐습니다, 광주 5.18 있었기에

부모가 자식의 장례를 치른 날들이여
젊은 아내가 더 젊은 아내를 장송한 날들이여

서로의 가슴 뜨겁게 느끼며
오해 털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영·호남이여

그래도 우리의 입
조금은 열렸습니다, 6월 항거 있었기에

비명횡사에서 의문사까지
밀실의 고문사에서 광장의 직격탄사까지

빛나간 권력의 탐진ちに 맞서다
하나의 목숨 앗긴 여럿의 민주영령 위하여

향을 피웁니다
마음 모읍니다
산자들이 다시 촛불을 켭니다

하오니 부디 극락왕생
지지 않는 큰 꽃밭 찬란히 일구소서

8.

인간에 희생된 동식물 영가 前

주고 받았습니다, 그대의 것
뿌리면 뿌리 짝이면 짝 잎도 줄기도
공중의 열매 씨앗까지도

아니오 준 것은 없고
우리가 그대의 온몸 다 앗았습니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대의 것
토실한 살이면 살, 피면 피
물렁하면 물렁뼈 굳세면 굳센 뼈까지

달면 단 대로 안창살 토시살
쓰면 쓴 대로 쓸개까지

아니오 준 것은 없고
그대의 온몸 우리가 다 앗았습니다

내 힘 내 웃음 눈물에마저 그대 있어
흥와 樂 哀怒에마저 그대 있어
우리, 여기, 이렇게, 살고 있나니

이 산에 이르러 무심 거두고
그 고마움에 합장합니다
허리 굽힙니다

극락왕생 하시라
인간들이 모여 큰절 올립니다

9.

살처분 동물영가 前

당신-, 닭 오리 개 돼지 소 염소...
당신-, 금계 오골계 장끼 메추리 칠면조...

당신들은 숫자로만 잠시 나에게 왔다가
순식간에 생매장을 당했네

긴급 살처분, AI 의심 150,000 마리
또 살처분- 반경 500m 120,000 3km 263,000

포크레인과 구덩이, 하얀 포대자루로만 잠시
내 눈 스치다가 이내 잊혀져 갔네

108만 마리, 420만 마리, 1천만 마리

함께 묻히기 전
무정의 계란이 유정의 인간에게 묻더이다
이뉘꼬 이게 뉘꼬?

함께 죽어가기 전
오리 한 마리 오도송처럼 외치더이다
뉘탓 누구 탓 우리네 탓?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을 이유로
살처분당한 동물 영가여

당신님 탓 아니기에 고개 숙이나니
자연의 법 거스른 우리 인간들 탓이기에
부끄러움으로 참회의 향 사르나니

고이고이 극락왕생 하여지이다

10.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영가 前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의는 아니오나 실험의 이름으로 밤낮으로

연구의 명목으로 임상의 구실로 사계절
치료의 일편 예방의 수단으로 수년 수십년

축생이라 하여 미물이라 하여
그대들을 찌르고 자르고 가르고 토막내고
저미고 여미고 먹이고 굶기고

그제는 병 주고 어제는 약 주고
오늘은 어찌 됐나 관심을 주고
그리곤 싸늘히 식혀 내다버렸습니다

사람 대신 사람노릇 하다 제명 못 살고
갔습니다, 쥐 토끼 개 원숭이 그리고 그리고

전생에 내 친구였을지도 모를
더 전생에 내 형제였을지도 모를
더더 전생에 우리 어머니였을지도 모를

동물영가들이여, 어서 오시어 공양 받으시라
고운 님 손잡고 극락왕생 꼭 그러하시라

만불산 사부대중 이리도 산처럼 모여
영가들께 오늘 이리이 천혼대재 올리나니

우란분절 맞아 일으키네 꽃 이루네 萬佛
도량에 온누리에 화엄의 꽃 피어나네 *